



호남지역 신천지 피해자 가족협의회 출범식

28일 오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열린 '호남지역 신천지 피해자 가족협의회 출범식'에서 신천지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김생훈 기자



금호평생교육관 수제 면 마스크 기부

광주교육청에 220개 전달

금호평생교육관(관장 양주승)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에 수제 면 마스크 220여 개를 기부했다.

수제 면 마스크는 금호평생교육관 소속 서효정 운영팀장, 평생교육프로 그램 중 하나인 휴폐선 강사와 일부 수강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손수 제작했다. 수제 면 마스크는 이후 광주 지역 특수학교에 전달돼 마스크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금호평생교육관 서효정 운영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광주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성껏 마스크를 만들었다"며 "수제 면 마스크가 지역 내 장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승 관장은 "이번 재능 기부에 가까이 참여해주신 운영과 직원, 휴폐선 강사·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강화

코로나19 확산 예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 여수지사 운항관리센터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객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9일 여수지사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매일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운항관리자부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여객선 이용객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유지중이다.

또 여객선 선원들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여객과의 대면시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수시로 지도·교육하고 있다. 여객선사는 여객선 운항 종료 후 선내 소독·방역 작

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여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 중이다. 모바일 승선권 이용도 장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혼잡한 터미널 매표창구를 거치지 않고 신분증과 모바일 승선권만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상초 여수운항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또는 접촉자 발생 시를 대비해 여수운항관리센터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여객선 안전관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립된 2020년도 봄철 해상교통안전대책과 더불어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시민들 문화창작가로 거듭나도록 돕고 파”

플리마코협동조합 김혜현 대표

브릿지 디 마켓 등 청년작가 창작물 플리마켓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마련... “진입장벽 허물고 싶어”

“청년작가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협동조합을 생각해 됐다. 지금은 문화 소비자가 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Frymarco 협동조합’ 김혜현 대표(33)는 지난 2015년부터 5년째 문화예술 중심의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광주 동구 ACC에서 하늘마당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열리는 ‘BRIDGE D MARKET’이 플리마코의 대표적 플리마켓이다.

이곳에서 30~40여개의 청년 문화작가들이 모여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음 작품에 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곳에서 수익을 올린 청년작가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창작물

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이것이 김 대표가 생각한 지역 문화사업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김 대표는 “미대를 다녔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역에서 설 자리를 잃고 서울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됐다”며 “처음에는 친구들 포함 5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60여명의 지역 청년작가들이 함께 문화수도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본격적으로 문화 소비하는 시민들이 직접 문화를 창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동명동 한 건물 3~4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3층은 기존 작가들이 만든 도자기, 스티커, 핸드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꾸몄다. 4층에는 직접 물건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마련했다.

3층에서 다양한 창작물을 살펴보다가 만들어보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나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와 다른 점이다.

김 대표는 “3D 프린터 등 수천만원 기계가 즐비한 메이커스페이스라 할지라도 각 업종의 전문가들만 접근이 가능했던 게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인데 그 경계를 허물고 싶었다”며 “기존의 청년작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창작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리마코는 청년작가들의 새로운 창작을 위해 광주 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등 국내와 함께 덴마크, 호주 등 세계적 크리에이터들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문화수도 광주가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시의회, 대구시의회에 마스크 전달

광주시의회(의장 김동찬) 의원 일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광주시의회는 23명 의원 전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마스크 5,000장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구시의회에 지정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동찬 의장은 “코로나19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달빛 우정의 도시인 대구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자기 일처럼 받 받고 기부해 나

섰다”면서 “우리 광주시의회는 대구시민이 겪고 있는 전무후무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구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광주·대구시의회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5·18민주화운동과 대구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서로 교차 참석하는 등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황애린 기자

“코로나19 위축 시민 마음에 위안을”

광산구, SNS·현수막·안부전화로 시민들에 희망 전해

코로나19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SNS·현수막·전화로 이어가고 있는 일련의 희망 확산 사업들이, 위축된 시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며 지역사회에 전진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의 특별한 영상 콘텐츠들이, 최근 입소문을 타고 지역사회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콘텐츠들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예술가·단체들이 광산구의 ‘SNS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제작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과 응원, 공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광산구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파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공연활동을 할 수 없는 예술인·단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27일까지 광산구 SNS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5개. 각 콘텐츠는 2~5분 내외로 희망 메시지와 장르별 공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6일에 업로드된 주홍 샌드 애니메이션(sand animation) 작가의 모래를 이용한 동영상은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남녀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모습,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나요’ 메시지와 다가가 행복의 장면 등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음악그룹 ‘프롤로그’는 자작곡 ‘다시 합시다’를 부르며, 타악그룹 ‘열쑥’



는 대북을 연주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지역사회 희망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시민은 페이스북 댓글에 “중독성 있다. 다양한 희망 메시지 영상이 지루했던 일상의 액센트가 되고 있고, 다시 힘을 내는 계기를 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영상을 올린 트로트 가수 진이랑은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광산구의 SNS 희망 릴레이 캠페인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고, 총 10개 콘텐츠가 제작·전파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영상 콘텐츠 외에도 광주송정역 앞 건물, 구 청사를 비롯한 광산구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립도서관, 버스승강장 등 104곳 외벽에 ‘오라차차, 힘내요’로 시작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구민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윤영봉 기자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jndn@chol.com

결혼: ▲고 정해철·이인자씨 장남 근영군, 안봉일(완도 군청 기획예산담당관)·김영자(완도 교보생명 매니저)씨 장녀 하림양=4월19일(일) 낮 12시 광주 북구 문흥동 까사디 루체 3층 안젤로홀. 피로연(신부측) 4월 9일(목) 오전11시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26, 수협회센터 2층(061-554-5510). 모집: ▲(사)한국통합의학포럼 제6기 당노힐링캠프 참가자 20명 선착순 모집=일시 코로나가 안정되는 5~6월 예정, 장소 담양힐링센터, 1박2일 안캠프 참가자도 수시모집, 문의 (062)972-8074(김보배). ▲북구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지역으로 전문인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주치의를 실시합니다. 읍주·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중독 무료 상담.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062-526-3370.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 및 분만 혜택과 상담(임양, 양옥) 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 무등합창단 단원 모집=매주 화요일 오전10시 광주 각화동 각화 문화의집 010-9440-2637, 265-9337.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 지시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맞춤형실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 ▲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광주지방보호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귀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지원. 1577-8339, 국번없이 13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애돌봄사업단=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파견사업진행, 대상 서구구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 351-3029,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효적정리, 가정 고 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서주기, 묘자리 비파주 등 (실버에 한함)011-9602-0001. ▲일기정영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국번없이 1366.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슬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 전화 1577-0199.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역려를 위한 혼성합창단모집 062-675-5955.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기초반·초등반·중등반·영어기초반·한문·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서방시장 인적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국가무형유산 각설이품바 등 수강생 모집=각설이품바, 타령장구, 옛가위춤 등. 수·금 오후 2시, 금남로4가역 부근 파랑새 소극장. 강사: 각설이연희회 이진수사 최연홍. 010-3620-4341.